

소를 피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감독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행렬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성가와 찬가를 부르고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신자들은 행렬을 하는 동안 촛불이나 등불을 들고 행렬을 한다. 걷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 또한 인생 여정을 반영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행렬은 모든 성덕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영광송과, 주교나 사제, 부제의 축복으로 마무리한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행렬은 그것이 하나의 ‘공동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기도의 분위기에 동참하고, 함께 노래하며, 한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서로 간의 결속을 경험하며,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열중한다.

제7장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

248.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이른다.”³⁴⁸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러한 의문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요한 3, 16) 하려고 성부에게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그를 들어올릴 것이다.”³⁴⁹ 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 말씀에 기대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의인들도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³⁵⁰ 굳게 믿고 희망한다.

249.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348. 사목 현장, 18항.

349.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350.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9항.

죽음은 이 세상 삶의 끝이지만, “우리 존재의 끝은 아니다.”³⁵¹⁾ 영혼은 불멸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계산되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변하고 늙어 가므로, 지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생명의 정상적인 끝마침으로 보인다.”³⁵²⁾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인간의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다.”³⁵³⁾

어떤 면에서 죽음은 자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 죽음은 “죄의 대가”(로마 6, 23)로 볼 수도 있다. 교회는 성서의 의미를(요한 2, 17; 3, 3, 19; 지혜 1, 13; 로마 5, 12; 6, 23) 참되게 해석하면서 “죽음이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³⁵⁴⁾고 가르친다.

하느님의 아드님 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며”(갈라 4, 4) 인간 조건의 하나인 죽음을 경험하셨다. 죽음 앞에서 고뇌하시면서도(마르 14, 33-34; 히브 5, 7-8),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유로이 순명하십시오써 이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순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켰다.”³⁵⁵⁾

죽음은 충분한 참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날을 탄생일(dies natalis), 곧 하늘에서 태어나는 날로 본다. 하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묵시 21, 4). 죽음은, 전례가 말하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세상에서 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³⁵⁶⁾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은총의 사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성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필립 1, 21).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말씀도 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2티모 2, 11).

250. 교회의 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세례에서 시작된다. 세례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새 생명을 살기 위하여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죽는다면, 육체적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제자들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하고 결정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를 완성시킨다.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교회의 대리 기도는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느님만이 그 믿음을 아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³⁵⁷⁾ 영원한 생명을 간청하는 것이다.

대리 기도의 의미

251. 의인들은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고자 그들을 당신께 불

351. 성 암브로시오, *De Excessu Fratris*, I, 70, CSEL 73, Vindobonae, 1955년, 245면.

35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7항.

353. 같은 곳, 1013항.

354. 같은 곳, 1008항; 트리엔트 공의회, 「원죄에 대한 교령」(*Decretum de Peccato Originali*), 1546, 6, 17., DS 1511 참조.

35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9항.

356. 『로마 미사 전례서』, 위령 감사송 I.

357. 같은 곳, 감사기도 제4양식, 전구(轉求) 참조.

러 주신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들을 씻지 않고는 누구도 하느님과 맺는 친교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³⁵⁸

여기에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심 관습이 나왔다. 이는 죽은 이들의 영혼에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 사랑의 불길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어 빛과 생명의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이다. 이러한 대리 기도는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믿음의 경배적 표현이다. 사실, “나그네들의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이래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으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기 때문에’ (2마카 12 45 참조),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를 바쳤다.”³⁵⁹ 이는 일차적으로 성찬례의 거룩한 희생 제사의 거행으로 이루어지며,³⁶⁰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자선 행위, 자비 활동³⁶¹, 그리고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사를 주는 것처럼³⁶² 다른 신심 실천을 통

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

252. 다른 라틴 전례나 동방 전례와 마찬가지로, 로마 전례도 죽은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리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은 전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거대한 광역 도시의 생활 환경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흔히 두 부분으로 축소되거나 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은 다음과 같다.³⁶³

● **밤샘 기도.** 죽은 이의 집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가족이나 친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대리 기도를 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신앙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로마 12 15)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유대를 표현한다.³⁶⁴

● **성찬례 거행.** 가능하다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성찬례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파스카의 신비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에 다시 모이리라는 희망을 북돋아 주며, 죽은 이에 대한 신심을 일으켜 주고, 그리스도인

35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1항, DS, 1304 1820, 1580 참조.

359. 교회 현장, 50항.

360. 제2차 라온 공의회, 「미카엘 팔레올로구스의 신앙 고백」(*Professio Fidei Michaelis Paleologi*), 1274 7. 6., DS 856;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Epistula*) I, 2, CSEL 3, 2 Vindobonae, 1871년, 466-467면;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Confessiones*), IX, 12 32, CSEL 33 1, Vindobonae, 1896, 221-222면.

361. 성 아우구스티노, *De Curis pro Mortuis Gerenda*, 6, CSEL 41, Vindobonae, 1900년, 629-631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고린토 전서 강론」(*Homilia in Primam ad Corinthios*), 41, 5, PG 61, 494-49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2항 참조.

362. 『대사 총람』, 대사에 관한 규정 (Normae de Indulgentiis), 3항,

21면;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9항, 74-75면 참조.

363. 『장례 예식서』, 지침과 해설, 4항.

364. 영어권 국가에서 아직도 ‘wake’라고 불리는 이러한 밤샘 기도는 그 모든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향료를 발라 드리러 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복음의 여인들을 본받는 것이다.

생활의 증거를 보이도록 권장하는 하느님 말씀³⁶⁵ 듣는다. 주례 사제는 강론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하여 해설하지만, “장례식 조사의 종류는 피해야 한다.”³⁶⁶ 성찬례에서 “교회는 죽은 이와 이루는 효과적인 통공을 표현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그 자녀의 죄와 죄의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 나라 식탁에서 완전한 파스카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성부께 청한다.”³⁶⁷ 장례 미사의 의미심장한 독서는 전례가 성찬례를 종말론적 잔치이며 죽은 이들을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안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고별식, 장례 행렬, 매장. 고별식에서 죽은 이는 하느님께 맡겨진다. “고별식은 시체를 발인하기 전에 또는 매장하기 전에 교우 단체가 마지막으로 가는 형제에게 인사하는 예식이다.”³⁶⁸ 장례 행렬에서, 지상에서 순례하는 동안 자신의 태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사적으로 낳은 어머니인 교회는 이제 죽은 이가 부활을 기다리며 쉬게 될 장소까지 시신을 동행한다(1고린 15, 42-44 참조).

253. 장례 예식의 모든 단계는 최대한 품위 있게, 또한 종교적 감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죽은 이의 육신은 최대한의 존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장례 비품들은 품위 있고 걸치레가 없어야 한다. 전례적 표지들, 십자가, 부활초, 성수와 향은 모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254. 그리스도교 신심은 언제나 매장을 신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생각해 왔다. 이는 죽음이 육신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관습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거나 방부 처리하거나, 심지어 화장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의도를 멀리한다. 매장은, 흙에서 난 인간이(창세 2, 7 참조) 흙으로 돌아가는 것(창세 3, 19; 잠회 17, 1 참조)을 상기시키며,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밀알처럼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것을 생각하게 한다(요한 12, 24 참조).

화장은 변화된 생활환경 때문에 생긴 현대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규율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자신의 시체를 화장해 달라고 누가 청했을 경우, 그것이 신자 생활에 어긋나는 이유에서 청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한다.”³⁶⁹ 그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신자들은 죽은 이들 화장한 재를 집에 보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지상에서 안식 중인 이들을 불러 올리실 때까지, 또한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낼 때까지(묵시 20, 13 참조) 일반적인 방식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른 대리 기도

255.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지 3일, 7일, 30일 쯤 되는 날에, 그리고 해마다 그들의 기일에 성찬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구하는 미사 거행은, 죽음의 문턱을 넘은 이들과 이루는 통공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교 방식으로 기억하고 연장하는 것이다. 11월 2일, 교회는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미사 성체를 거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성무일도를 바친다.

365. 『장례 예식서』, 지침과 해설, 11항.

366. 같은 곳, 41항.

36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89항.

368. 『장례 예식서』, 지침과 해설, 10항.

369. 『장례 예식서』, 지침과 해설, 15항; 교황청 성무성서 훈령, *De Cadaverum Crematione*, 2-3, AAS 56(1964), 822-823면; 교회법 제1184조 1항 1, 2호 참조.

교회는 미사를 거행하고 저녁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들을 ……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³⁷⁰ 주님께 날마다 간청하고 기도한다.

교회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 비추어, 신자들이 고인이 된 자기 ‘가족’에게만 미사를 결부시키는 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³⁷¹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전구하는 미사 거행은 죽음에 대한 중요한 교리교육의 기회도 된다.

대중 신심에서 죽은 이들의 기념

256. 전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 신심도 죽은 이들을 기념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정성 들어 기도를 바친다.

‘죽은 이들의 기념’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 교리적 측면에서나 전례 행위와 신심 행위를 조화시키는 일에서 사목적 신중함과 기지를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57. 대중 신심은 언제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칙들에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동참한 사람들이 겪은 죽음의 파스카적 의미와(로마 6, 3-10 참조) 영혼의 불멸과(루가 23, 43 참조) 성인들의 통공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에 따르면,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³⁷²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다.”³⁷³ 또한 육신의 부활과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³⁷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각자가 한 일에 따라 주어질 보상,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민족들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예배’와 연관된 풍습과 관습 가운데에서 특별한 인간학적 개념들을 내포하는 오랜 전통의 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가족이나 사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맺는 유대를 연장시키려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습들을 조사하고 평가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이들이 복음에 반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관습들이 이교도의 유산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8. 교리와 관련된 문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피해야 한다.

- 점술과 관련된 관습으로 죽은 이를 불러 내는 주문.
- 흔히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죽은 이와 관련된 꿈을 해몽하거나 상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
- 환생에 대한 믿음의 제시.

372. 교회 헌장, 49항.

373. 『가톨릭 교회 교리서』, 958항.

374.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370.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제1양식, 죽은 이를 위하여.

371. 위령 미사에 관해서는, 『미사 경본의 총지침』, 355항 참조.

● 그리스도교를 죽은 이들의 종교처럼 보이게 하려고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거나 죽음과 부활을 분리시킬 위험.

● 죽은 이들에게 시공간적 범주 적용.

259. ‘죽음과 그 징표를 숨기는 것’은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교리적 사목적 오류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임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 집 밖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환자들에게 의사나 간호사, 가족들은 흔히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숨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산 자들의 대도시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작은 아파트 건물에는 죽은 이들을 위한 밤샘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교통 체증을 생각하면 장례 행렬을 할 수도 없다. 한때는 지역 교회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참으로 ‘거룩한 땅’으로서 그리스도와 죽은 이들의 유대를 보여 주었던 묘지는, 도시 계획에 더 이상 공동 묘지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도시 외곽 외딴 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죽음의 징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그 존재를 감추고 싶어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되도록 오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화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죽은 시신을 보존하는 방법에 의존하기도 한다.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친숙하게 받아들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는 이들의 도성에 죽은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죽은 이들에 대한 불용’ 현상을 내적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죽음의 징표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특히 그러한 불용과 거부가 현실에 대한 도피나, 희망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물질주의적 우주론을 부추길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신자들의 슬픔을 이용하여 무절제하고 불명예스럽게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죽은 이들에 대한 상업화’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260. 죽은 이들에 대한 대중 신심은 시대와 장소,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 11월 2일을 준비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9일 기도와 그것을 연장한 8일 기도. 이는 전례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 묘지 방문.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2일이나 본당 직부가 끝날 때, 또는 본당 사제가 본당에 취임할 때 공동으로 묘지를 방문하거나, 신자들이 자기 가족들 무덤을 손질하고 꽃이나 등으로 장식하려고 개인으로 묘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그러한 묘지 방문은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의 유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비롯한 어떠한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시각에 비추어 ‘죽은 이를 매장’하고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유가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신심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

● 자선 활동, 자비 행위, 단식, 대사, 그리고 특히 위령 기도인 ‘깊은 구렁 속에서’ (De profundis)와 흔히 삼종기도나 목주기도, 식사 전후 기도를 할 때 함께 바치는 ‘영원한 안식’ (Requiem aeternam)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